

# 목포 해상케이블카 장애인 차별 논란

### 일반인보다 할인율 적고 고급 캐빈은 그마저도 적용 안돼 시설·서비스 개선 요구도 잇따라...시 "관여할 수 없는 입장"

지역의 대표 랜드마크로 부상하고 있는 목포 해상케이블카가 할인요금 체계를 두고 장애인 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할인이 일반 목포시민보다 적은 데다 고급 캐빈에는 아예 적용되지도 않는다는 지적이다.

목포시에 따르면 민선 6기 박홍률 시장이 추진해 2019년 운영을 시작한 목포 해상케이블카는 목포 시내 북향스테이션을 출발해 유달산 정상부에서 '1'자로 꺾여 해상을 지나 반달섬 고도도를 운행하고 있다. 운행 거리만도 총 3.23km에 이른다.

특히 다도해의 금빛 낙조와 야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압도적인 탐승거리와 볼거리로 베트남 빈펄케이블카를 능가하는 아시아 최고의 케이블카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 구축 일환

으로 해상케이블카와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용 요금은 성인 기준으로 일반 캐빈 2만2000원, 크리스탈 캐빈 2만7000원이며, 목포시민은 4000원을 할인해 주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목포시민보다 적은 2000원을 할인해 주는 데 그치고 있다. 그것도 일반 캐빈 왕복 이용의 경우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고급 캐빈으로 분류된 크리스탈 캐빈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장애인 차별이 일고 있다.

또 사실상 생활권인 신안 지역 주민 등은 이마저도 할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설과 서비스 개선에 대한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캐빈 내에 냉방시설이 없어 이용객들이 더위와 씨름하고 있으며, 일부 이용객은 불편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목포시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기 위한 대대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 관계자는 "장애인을 배려한다고 생색은 다 내면서 고작 2000원을 할인해 주고 있으며, 크리스탈 캐빈은 할인이 없어 장애인이면 고급 캐빈은 이용하지 말라는 꼴로 이는 엄연한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직원들이 수시로 편익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방송을 통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대체로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요금과 관련해서는 회사 내 운영상 문제로 목포시에서도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 2022년 전남창경투자포럼 목포서 개최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25일 목포해양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25일 오후 '제6차 2022년 전남창경투자포럼'을 국립목포해양대 본관 5층 최고경영자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한국엔젤투자협회 호남권 엔젤투자허브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박홍률 목포시장, 조옥현 전남도의원, 한원희 국립목포해양대 총장, 김수삼 한양대 석좌교수, 창업유관기관, 투자기관, 기업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목포시의 성장 가능성 높은 초기 기업을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지역 내 투자유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목포시,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전남관광재단, 목포수산식품연구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등 지역의 창업유관기관 간의 협업으로 마련됐다.

이날 특별 초청강사인 김수삼 한양대 석좌교수가 '목사포(木曹浦)가 지향하는 미래, 전남 1호 벤처캐피탈(VC) 한국가치투자회사 배준학 대표가 '펀드 및 투자사례 발표', 개인투자조합 운영사 엔슬파트너스 구원희 대표가 '지역엔젤징

검다리 펀드 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또 3개 창업기업 IR(Investor Relations) 발표와 ㈜해안드론기술에서 준비한 '나라온' 해상드론배송 플랫폼 시연회도 이어진다.

'전남창경투자포럼'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전남도내 성장가능성 높은 초기기업을 발굴, 투자와 판로지원을 통해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창업기업 IR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다.

이번 IR 행사에는 ㈜스냅팻 김성철 대표이사, 예비창업자 오규주 대표, 황의철 ㈜해안드론기술 대표이사 등이 발표를 맡았다.

정영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은 "우리 센터의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전남도내 우수한 기업들이 투자유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창업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많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전남형 투자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무안군, 민선8기 7개 분야 100개 공약 확정

### 생산기술연구원 전남본부 유치·K푸드 융복합 산단 조성 등

무안군이 민선8기 공약보급회를 갖고 7개 분야 100개 공약을 확정했다.

무안군은 지난 22일 김산 군수를 비롯해 전제 실·단·과·소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약사항 추진계획과 방향에 대한 보고회를 열어 100개 공약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민선8기 '무안을 더 크게, 내 삶을 더 높게'라는 슬로건 아래 ▲젊은 도시 경제수도 무안 ▲모두 더 잘사는 상생 무안 ▲맛과 멋 힐링 도시 무안 ▲과학영농 선구도시 무안 ▲안전하고 편안한 삶터

무안 ▲교육반기 좋은 도시 무안 ▲화합 소통 행정수도 무안 등 7대 균형 발전에 맞춰 100개 과제를 공약으로 확정했다.

주요 공약사업으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남본부 유치 ▲K푸드 융복합 산업단지 조성 ▲남악지구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오룡지구 스포츠공원 조성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영산강권역 도자문화 플랫폼 구축 등이다.

또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스마트팜 영농단지 구축기반 조성 ▲전 군민 코로나 지원금 20만원

지금 ▲오룡지구 고등학교 신설 지원 ▲대학진학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포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비 지원 ▲무안을 장난감 도서관 신설 ▲해제면 사무소 신청서 건립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은 공약 이행평가와 실천계획 수립과정에 군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을 기존 15명에서 3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군은 이번 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 중 최종계획안을 확정하고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 군립미술관 임시공간 해남아트마루 31일 개관

해남군이 현재 추진하고 군립미술관 건립에 앞서 임시로 활용하게 될 해남아트마루(사진)를 개관한다.

해남아트마루는 해남문화예술회관 인근 옛 국토정보공사 해남진도지사에 위치해 있다. 1층은 수장고와 사무실, 2층은 109㎡규모의 전시실로 구성된다.

해남아트마루는 해남군립미술관이 개관하기 전까지 임시로 운영되는 공간으로 해남읍 중심부에 위치해 지역민들이 쉽게 미술전시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아트마루에서는 개관 기념으로 오는 31일부터 해남미술협회와 함께하는 ' 으뜸해남을 그리다' 전시회가 열린다.

해남 대표 미술단체인 (사)한국미술협회 해남지부의 박윤희 회장을 비롯한 28명의 작가가 참여해 동양화 서양화 서각 서예 등 다양한 작품을 다음달 16일까지 선보일 계획이다.

해남군은 민선8기 문화예술분야 중점추진과제로 오는 2025년까지 해남읍 연동리에 복합뮤지엄파크를 건립할 계획으로, 해남군립미술관도

이곳에 위치하게 된다.

군립미술관 건립을 통해 예상 해남의 문화예술을 더욱 활성화하고 수집 전시 교육 등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의 거점 마련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완도 다시마 친환경 유기수산물 인증 획득

완도군이 군 최초로 다시마 가공식품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친환경 유기수산물 인증을 획득, 최근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사진)

완도군은 지난 2020년부터 관내 다시마 생산 어가와 농공단지 소재 (유)대한물산과 협업체 2년 만에 다시마 가공식품 친환경 유기수산물 인증을 군 최초로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뿐만 아니라 식약처의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HACCP)도 취득해 전국 최초로 친환경 유기수산물 인증과 식품안전관리 인증을 동시에 받게 됐다.

유기수산물 인증은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식용 양식 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 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 검사를 한 후 정부가 안전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친환경 유기수산물의 생산부

터 가공, 유통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유기수산물 인증을 받은 정대환 (유)대한물산 대표는 "앞으로 수산물 시장은 친환경 생산·가공·유통 시장으로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2년 동안 유기 가공식품 인증 등에 대응해 왔다"며 "추후 유기 수산물 밀키트 등 고차 가공식품 개발과 의약품 및 산업용 신소재 개발 등 완도 해조류의 고부가가치 및 해조류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증서 수여식에 참석한 신우철 완도군수는 "우리 군에서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인 ASC와 유기수산물 인증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군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해외시장 개척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도 완도 해조류의 우수성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인증 품종 확대 및 판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영광군, 청사 주차장 내달부터 유료화

영광군이 민원인과 방문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청사 주차장을 유료화하기로 결정했다.

영광군은 그동안 무료로 운영했던 청사 주차장을 다음달 1일부터 유료화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군청 주차장에 '양심불량' 장기 주차 차량'으로 인해 방문객과 민원인들이 주차장 이용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영광군은 주차장 주차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난 5월 무인주차 관제시스템을 설치했다.

6월부터 8월까지 시범운동을 시행한 가운데 오는 9월부터 유료화를 본격 시행한다.

운영방법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유료화하고, 평일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토요일일과 공휴일은 무료로 운영한다.

주차요금은 민원업무 시간을 고려해 2시간은 무료이며, 이후부터는 30분당 500원, 1일 최대 5000원의 주차이용료를 징수할 예정이다.

/영광=이종우 기자 jylee@kwangju.co.kr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

손해보험협회